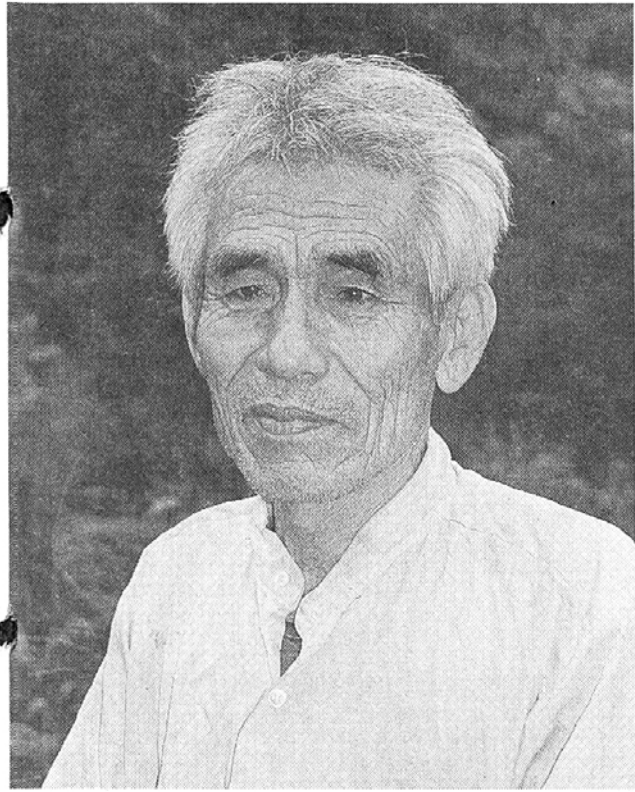


“나무 키우며 사는법 배워요”

신문박의 **示單**

농사꾼 수필가 전우익 씨



—그럼 이 일도 선생님께서 마음 다 스리는 수행이겠군요.
 ▲뒤 수행까지야 되겠어. 그저 시끄러운 세상놀음 잊기에 좋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하며 있는 것은 세상놀음만이 아니라, 내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까지 말끔히 잊어 버린다구.
 —4년전 대흥사 아래 낡은 여인숙에서 보았을때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며 술잔을 비우셨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희망 있는 인간의 세상이라면 가스가 터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바다에 기름이 떠돌아다니는 일이 어떻게 일어 나겠어. 뉴스를 듣는 귀까지 막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구. 백화점이야 인간의 욕심이 무너뜨렸으니 인간이 죽는 응보를 받았지만, 왜 죄없는 바는 인간의 못된 심보로 인해 죽어야 하나야 말이야. 인간에게 절망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

다는 걸 알아야 해.
 —말씀을 듣고보니 인간의 욕심은 당장 엄청난 것같이도 사실은 작은 욕심인 것 같군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말로 큰 욕심이 아닌가. 이 사람이. 하하하...
 —이렇게 대정마루까지 침범한 산수유 가지도 선생님의 다정한 벗이겠네요.
정원수도 가위질 말아야
 ▲열매가 잘 맺혔지. 나는 저 열매를 먹지 않아. 도시 사는 친구들이 갖다 먹어. 그들은 저 열매를 먹으며 산수유를 먹었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나는 저 산수유 나무가 봄에 꺾질 벗으며 쭉이는 걸 보고 일등고 꽃피고 열매 맺혀 익어가는 걸 보는 것으로 알내내 배가 불러. 나무의 꺾질벗기가 인간의 도통하기 같아야 하는데 인간은 해마다 도통하는 길의 반대로 달려가고 있어.

“나무는 가물어야 뿌리 더 깊이 내리자
 인간은 악조건을 거부하며
 개발만 거듭하므로 점점 쇠약해져
 선악 받아들이는 텅빈 마음 필요”

“죄없는 바다 인간의 못된 심보가 죽이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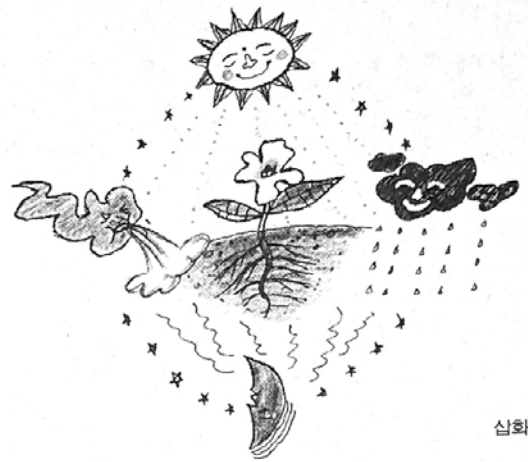
고집쟁이 농사꾼의 트랙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동네 어귀에 선 아름드리 소나무 10여그루가 작은 촌마을의 분위기를 범상치 않게 지키고 있었다. 신작로를 향해 우르르 뛰어 내려 올 것 같은 낙엽송들이 폐곡한 산모퉁이를 돌아서 만나는 몇채의 고가(古家)들. 길가엔 한 소녀에게 물으니 “저기가 그 할배의 집”이라고 손짓을 했다.
 반들반들 윤기 어린 대정마루 한편에서 못자리를 매고 있는 주름살투성이의 할배가 일손을 놓고 일어서 불청객의 손을 잡으며 “허허 오랜만에 만나는 근” 하며 웃어 보였다. 그 정남치는 할배가 바로 <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겨>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 옵디까>를 쓴 전우익(70)선생이다.
 암울한 시대에 ‘민청’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겪고 대대로 터잡고 살아 온 구천리로 돌아와 ‘운동권’과 ‘억압권’의 밀고 밀리는 판을 출몰 떠나 홀로 살고 있는 전우익선생. 그러나 그는 어

찌면 ‘혼자 잘 사는 재미’를 만끽하는 우리 시대의 자유인임에 틀림없다. 공짜로 굴러오는 호박을 바라지도 않으며 “사람답게 사는 법을 칠순의 나이에 나무 키우는 일상으로 배우고 있다”는 차분한 근황 얘기가 그의 자유로움을 은근히 비추주고 있었던 까닭이다.
‘호박이 어디 공짜..’ 책 내
 —못자리 매는 것을 참으로 오랫동안 보게 되는데요. 뭘 그렇게 만드십니까.
 ▲이거 말이지. 부들이란 것이든 물가에서 캐다가 저쪽 구석에 심었더니 뿌리가 번성해 해마다 몇 아름씩 배다 말리게 됐구만. 인병선여사 알지? 신동엽시인의 안사람말이야. ‘짚풀생활박물관’을 열고 거기다 농했다고 좀 매 달라기에 시작했지. 꼭 누굴 준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고 있으면 맘이 편한해져서 참 좋아. 한 대 얹고 수십번 줄을 넘기고 또 한 대 얹고 줄 넘기고 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다 실컷 일하고 한 발쯤 놀러나 자리쪽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 진다니까.

이란 생각을 해 봐. 고개 들고 살기가 만만한 일이 아닌거야.
 —나무를 많이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묵은 밭을 헐하게 사서 나무를 심고 있어. 밭도 참에는 산이었지. 나무를 심는 것은 밭을 산으로 되돌려 주는 일이기도 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지만.
 —전지가위를 쓰지 않으시고 저렇게 마당가득 그냥 지라는데도 둔 것이 자연스럽군요.
 ▲아무리 정원수라도 가위질을 하는 건 안된다고 봐. 가위질로 다듬는 건 인간의 욕망대로 나무를 키우는 것이거든. 그럼 나무는 크는 것이 아니라 가꿔지는 거잖아. 그건 나무를 죽이는 짓이야. 그저 제 뿌리로 양분을 받아 들이고 제 가지 터지는데로 자라야지, 왜 인간에게 시달리려 커야 하는가.
 나무는 나무일 뿐이야. 나무는 내게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 한다구. 제멋대로 크는 나무지만 인간처럼 질서를 깨는 법은 없거든. 인간

—시골생활이 좋으십니까.
 ▲시골에 살면서 이런 걸 느껴. 농경사회의 거름이 산업사회에서는 쓰레기란 것 말야. 거름이 있는 곳에 사는데 좋지 않은 이유가 있겠는가.
 —순수 식수도 지어 드십니까.
 ▲베고픈데 밥 안지어 먹고 어찌겠어.
 —나무 얘기를 더 듣고 싶는데 이제 가봐야겠군요.
 ▲가야 또 오지. 그런데 이 얘기는 좀 듣고 가게나. 내가 나무 키우며 알게된 건데, 나무도 가물어야 뿌리를 더 깊히 내린다구. 가물이란 악조건을 나무는 악조건 그대로 ‘삶의 절규’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야. 하지만 인간은 악조건을 악조건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개발’을 하거든. 지구 개발하고 대체시키는 가운데 인간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덩달아 받아들이는 텅빈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다네. 이 늙은이가.

임연태 기자



심화·이기선

善緣은 행복의 울타리

단풍이 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실악은 단풍이 들었고 중부, 남부는 곧 이어진다고 한다. 아름답다. 산은 붉고 물이 맑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싱그러운 곳인가.
 단풍은 한 나무 일세에만 드는 것이다. 산에 있는 나무는 물론 풀잎에도 단풍이 든다. 한가지 색깔로 색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갖고 있는 색깔로 물들게 하지만 붉은 색과 노랑색 그리고 맑은 푸른 색을 띄우게 해 산하대지가 장엄하게 된다. 여름에는 녹음방초라하여 완상하는 상춘객이 많았지만 단풍든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더욱 청아한 마음씨를 갖게 될 것이다.
 신비로운 정암이 자연속에 이루어진다. 한 나무, 많은 일새가 번성하여 가는 과정은 슬프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숭엄한 장관미를 느끼게 한다. 하나가 아닌 전체, 전체가 엄숙어 가면서 광장한 화폭을 그려내고

즐기 일새 꽃 열매로 전이하게 된다.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씨앗만 찾아나서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안으로 살펴보면 씨와 마찬가지로 휴발을 마련하는 것도 배어놓을 수 없는 사실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휴발 수분 온도 이것은 연

생활을 복되게 한다.
 인간은 연을 찾아 나서서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 바라밀을 행겨서 생활하고 무량살을 찾아나서 생활의 방도를 삼는다면 그 생활은 빛날 것이다. 그러나 삼악이나 삼악을 연으로 삼아 산다면 지옥고를 면하기 어렵고, 오욕외의 질곡에서 짓눌려 살 것이다. 지옥은 억눌림이다. 이 억눌림은 생명의 선질(善質)을 분쇄시키고 악질의 혈농으로 만든다. 이 혈농으로 몸도, 마음도 썩어 버린다. 우리 주변에는 썩은 농혈을 삼는 생명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지옥고의 생활을 하는 연을 맺은 것이다.
 보시를 많이하는 사람은 사귀고, 기도를 하는 사람과 가까이 되고 참회하는 사람과 벗이 되는 사람은 선연(善緣)을 울타리로 하는 사람이다. 이 선연을 벗으로 하고 울타리로 하는 사람은 금에라도 선정을 하고 자 하는 의식이 발아하게 된다. 원인이 중요한 것은 말나위 없다. 그 원인을 추심함에 비추어 연을 바르게 고르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 연은 인간을 새롭게 성취시키는 혼수력을 갖고 있다. 선연이란 상황과 같은 것이다.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아가면 경과도 양질의 것으로 될 것이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복수적이고 무량수적인 것이다. 증연(緣緣)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중중무진연이 더욱 합당한 것이다. 산에는 단풍이 만백만상으로 물든다. 증연의 소치일 것이다. 우리 인간도 증연을 생활하면서 자기 착함을 풀어내는 모든 남으로부터 배워내면 연(緣)의 깊은 의미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목성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45
연(緣)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이치

있으니 우람할 뿐이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한 색깔만 낼 수 있다면 단조롭기 짝이 없고 시작적으로 지루하게 할 것이다. 만산홍엽이라고 할까. 청엽만산으로 표현되라. 천만만만 물감이 하나의 화염을 만들어 내는 법에 충실하다.
 불교의 교설에 연(緣)이란 말이 있다. 원인에 의하여 결과와 생긴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생길 수 없다. 원인이 자라 열매가 된다는 것은 정칙이다. 씨앗은 열매 맺음의 원초적인 핵이다. 그러나 씨가 있다고 하여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씨앗이 뿌려질 흙이 있어야 한다. 휴발은 적셔주는 물, 적절한 햇빛의 온도, 온갖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만 씨앗이 발아하여

발을 배제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인에 대한 찾음이 강하다면 연에 대한 구함도 긴요한 것이다.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도 이 연을 잘 찾아 나서야 한다. 자기 스스로 빛나게 되는 사람도 있다. 자기발견에 충실한 사람은 성장이나 성취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발견에 둔감한 사람은 자기완성의 길이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연을 찾아 나서서 행정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 직업 취미 성향을 재빨리 발견하여야 한다. 선생 친구 직업 사회 이러한 것은 죽은 연으로 맺어질 수 있다. 악연으로 맺어진 환경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 선연의 환경은 인간

원인이 중요한 것은 말나위 없다. 그 원인을 추심함에 비추어 연을 바르게 고르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 연은 인간을 새롭게 성취시키는 혼수력을 갖고 있다. 선연이란 상황과 같은 것이다.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아가면 경과도 양질의 것으로 될 것이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복수적이고 무량수적인 것이다. 증연(緣緣)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중중무진연이 더욱 합당한 것이다. 산에는 단풍이 만백만상으로 물든다. 증연의 소치일 것이다. 우리 인간도 증연을 생활하면서 자기 착함을 풀어내는 모든 남으로부터 배워내면 연(緣)의 깊은 의미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경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축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함니다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한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작하여 만든 제품.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화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공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세일중
 1985년 김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Mr. 박
 Mr. 박